

# 2008년 무자년 안전의 시작은 실천에서 부터...



영일기업(주)  
www.youngilent.co.kr

황인홍 팀장

취재 | 임재근 기자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예정보다 40여분이나 늦게 포항역에 도착했다. 오후 4시 10분, 겨울의 짧은 해가 벌써 수줍은 듯 붉게 물들고 있었다. 새하얀 연기를 쉬엄 쉬엄 뿜어내고 있는 늙다리 굴뚝, 용광로에서는 불꽃놀이처럼 펼쳐지는 노란 불뚝이 국화꽃처럼 퍼진다. POSCO 내 운송전문회사인 영일기업에서 황인홍 팀장을 만났다.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황인홍 팀장은 올해로 52세, 포항에서 POSCO와 인연을 맺은 지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군을 제대하고 POSCO 내 외주파트너사에서 운송 업무를 시작했고, 1994년 이곳 영일기업으로 전직, 현장 운송반장을 거쳐 운송과장까지 8년간 운송실무를 하다가 그간의 현장 경험을 살려 지금은 안전부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운송 업무에서의 안전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뒤떨어져 하루에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곤 했다. POSCO 내에 소재, 원료, 부산물(폐기물) 등을 운송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이곳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운송을 위해서 현장에 진입하거나 적재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의식을 바로 잡고 작업 표준과 안전에 대한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그에게 안전을 접할 기회가 온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 또 다른 기회이자 도전이었다고 말한다.

안전업무를 시작하던 2005년 초, 그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어려움은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전문지식이 모자란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이 컸다. 오랫동안 놓고 있던 책을 다시 집어 들고 퇴근 후 공부를 시작하여 4개월여 만에 안전관리기사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늦은 나이에 시험공부가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에 자신이 관심을 갖

고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 오히려 즐거움이 컸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안전업무를 시작하던 2005년 어느 날, 그에게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다. 작업장에서 발생한 협착사고, 그로 인해 동료가 숨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안전관리자로서 심한 자책감과 동시에 가슴엔 커다란 구멍이라도 뚫린 아픔이 느껴졌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며 생명의 소중함과 그 생명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임무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사고의 슬픔을 딛고 더욱 안전업무에 매진해야겠다고 다짐한 황인홍 팀장은 운송작업에 있어서 안전작업 매뉴얼을 작성하고 좀 더 표준화된 자율안전의 실천을 위해 KOSHA 18001 인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1년여의 준비 끝에 작년 8월 인증을 획득했다.

포항제철 운송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기에 그 기쁨과 보람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인생에 있어 연습이 없듯이 사고에도 연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기꺼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 인간공학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근골격계질환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이라고 하는 황인홍 팀장, 그의 한결같은 안전에 대한 열정으로 초일류기업, 무재해사업장으로의 영일기업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